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농촌진흥청 | 동정 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배포 즉시 | 배포 2026. 11. 20.(금)

국산 감귤·차 품종 확산, 제주 농업 경쟁력 높인다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20일 국산 감귤 유기농 재배·가공 사례 확인
- 우리 차나무 품종 보급 현황 살피고 말차 생산 기반 확충 방안 논의
- 품종별 맞춤형 재배 기술 지원과 가공 기반 강화 추진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감귤 재배 농가와 차 재배 농가를 잇달아 방문해 국산 품종 보급 현황을 살피고,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 청장은 먼저 서귀포시 '유기농 별이네귤농장'을 찾아 국내 육성 감귤 품종 '하례조생'과 '미니향' 재배 현황을 둘러봤다. 이 농장은 두 품종을 유기농으로 재배하면서 자체 제작한 미생물제를 활용해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풋귤 착즙액 등 가공 상품을 판매하는 차별화된 생산·판매 방식을 실천하고 있다.

2017년부터 재배한 '하례조생'은 열매 크기가 더 균일해지고 나무 세력이 안정되면서 상품성이 향상되고 있다. '미니향'은 가지가 찢어지기 쉬운 특성을 고려해 유인 자재를 보강하는 등 품종 특성에 맞게 재배 관리하고 있다. '미니향'은 당도(15~20브릭스)가 높아 착즙용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청장은 감귤 품종별 생육 상황과 유기농 재배 관리 현황, 착즙액 생산·판매 사례 등을 살핀 뒤, 농가 관계자들과 생산성 향상, 판로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차 재배 농가인 '수망다원'을 찾아 국내 육성 차나무 품종 보급 현황과

말차 생산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강경민 '수망다원' 대표와 김서구 제주녹차발전연구회장 등과 우리 품종 보급 확대와 제주 말차 산업 육성 방안을 개진했다.

수망다원은 약 8.6헥타르(ha) 규모의 차밭에서 녹차·말차·홍차 모두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현재는 도입 품종을 주로 재배하지만, 올해 국내 육성 녹차용 품종 '상목'과 홍차용 품종 '홍설'을 기술이전 받아 각각 2만 1,000그루와 3,500그루까지 직접 번식해 심을 계획이다. 특히 '상목' 재배 과정에서 말차 원료로써의 적합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청장은 국내 농가의 말차 가공 설비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정부, 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차산업발전협의체에서 말차 가공 설비 지원을 건의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국내 말차 가공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국내 육성 감귤과 차 품종이 현장에 안착하고, 유기농 재배와 가공 상품 개발, 말차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품종별 맞춤형 재배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가공과 유통 기반까지 꼼꼼히 살펴 농가 소득 향상과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현장 방문 계획(안)

담당 부서 <총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강석범 (064-730-4101)
		담당자	연구사	박경진 (064-730-4110)
<공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책임자	소 장	문규철 (064-741-2524)
		담당자	연구사	김수진 (064-741-259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현장 방문 계획

❑ 세부일정

시 간 / 분	내 용	비 고
08:40~09:30 / 50	◦ **감귤 유기농 재배 현장 방문** (유기농 별이네귤농장 * 서귀포시 남원읍 태수로 305)	
09:30~09:40 / 10	◦ 이 동	
09:40~10:20 / 40	◦ **국산 차나무 품종 보급 현황, 말차 가공설비 점검** (수망다원 * 서귀포시 남원읍태수로 608번길 84)	